

# 전립선염

## ‘전

립선염이 뭐예요, 병원에서 전립선염이라는데 혹시 아내에게 옮겨주는 것은 아닌가요. 곧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아이에게 지장은 없겠지요.’ 대부분 남성들은 전립선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물어보는 말들이다.

전립선은 남성만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잘 모르는 미지의 기관이기도 하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남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하복부 통증 및 간혹 새벽에 팬티에 점액성 물질이 묻어있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소변 등 남성의 심별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심지어는 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일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혹시 최근 밖에서 외도한 적은 없었나 긴장을 하기 마련이다. 어떤 남성은 아내 몰래 전립선약을 복용하다가 성병으로 오인되어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한다.

회사에 다니는 K씨는 나름대로 착실한 가정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그런데 일년 전 결혼 이후 처음 밖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마침 집사람이 친정에 들러러 고향에 가고 집에 없었다. 친구들과 술집에 가게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마음에 있었는지 자주 추파를 보내왔다. 친구들의 부추김도 있고 하여 함께 여관에 가게 되었다. 성관계 이후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고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비뇨기과에 간다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창피하기도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

며칠 약을 먹으니 괜찮은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하였던 것이 화근이었다.

얼마 전부터 회사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좀 심하여 많이 피곤하였다. ‘일요일은 쉬어야지’ 하였으나 집사람이 집안에 가구를 바꾸어 놓자고 하여 일을 도와주었다.

평소 아이 돌보라 집안 일하라 힘든데도 도와주지 못해 집사람에게 미안하던 차에 하루종일 무리를 하였다. 물론 저녁에는 맥주에 삼겹살 파티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집사람과 성관계도 빠질 수가 없었다.

다음날부터 괜히 아랫배가 불쾌하고 소변을 봐도 본 것 같지 않아 다시 한번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다. 웬일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전 요도염 때문에 고생했던 생각이 났다. 당장 병원에 달려온 것이다. 소변 검사와 전립선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에 염증이 온 것이다.

집사람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운이 없게도 약먹는 모습을 부인에게 들켜버렸다. 무엇 때문에 약을 먹느냐는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예리한 집사람의 눈초리와 계속되는 추궁을 당할 수 없어 전립선염이라고 이실 직고하였다. 집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난리가 났다.

전립선염이 성병인가. 결론적으로 전립선염 자체가 성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전립선염의 70~80%는 요도염의 후유증으로 온다. 그러나 일부는 '소변을 오래 참던가' 하는 경우에 전립선내부로 소변이 역류하여 일으키기도 한다.

전립선염의 진단은 의외로 간단하다.

노련한 비뇨기과 의사라면 증상만으로도 전립선염의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좀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소변 검사 및 전립선 검사,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전립선 마사지를 하여 전립선 분비물을 조사해 보면 다양한 소견을 보여준다.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립선분비물에서 염증소견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배양 검사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단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요도로 염증균이 나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내에게 옮겨주거나 임신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전립선염이 남성들을 괴롭히는 까닭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만성으로 가는 데 있다. 그러나 전립선염이 있다고 더 이상 기죽어 지낼 필요가 없다.

최근 바이오 피드백 치료나 전립선내 약물 주사방법 등의 발달은 잘 낫지 않던 만성 전립선염에 획기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

각종 치료기구들의 발달은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획기적인 치료방법을 가져왔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전립선이 커지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전신마취하에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술이 발달되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전립선비대증이나 만성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경요도 침절제술은 방사주파를 이용하여 전립선조직에 침을 찔러 요도점막에는 손상이 없이 100°C정도의 열을 조직에 가해 조직의 응고성 괴사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경요도침절제술은 수술후 만족도, 소변의 최대속도 등이 의미 있게 좋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경요도를 통한 전립선절제술에 비해 요실금, 역행 성사정이나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매우 적고 통증이 적어 외래에서 부분마취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며 평균 30~40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다.

전립선질환!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